

# 격국과 상신에 대한 소고

황보관  
공주대학교

## The Study on *Gyeokguk* and *Sangshin*

Kwan Hwangbo  
Gongju University

**요약**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운명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일은 사람의 타고난 운명 즉 사주팔자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좋은 운명으로 바뀌도록 도전적인 노력을 하며 개운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운명을 뛰어넘는 길을 제시한 명대의 학자 원료범이 자식을 훈계하기 위하여 남긴 『요법사훈』은 팔자를 고치는 안내 책이며 그 핵심은 공덕(적선)을 쌓는 일이라 하며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또 혹자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동기부여 전문가로 베스트셀러 저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하여간 인간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와 궁극증은 창세 이래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어 오고 있다. 아마도 이는 우리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운명이 定命論이든 變命論이든, 운명학의 기능과 역할은 미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예측 술수학의 하나로 가장 대중화되어 있고 예측의 적중률이 높은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 명리학에 있어서 그 핵심과 요체가 되는 격국과 이에 수반되는 상신에 대하여 자평명리학을 중심으로 살펴봄에 혼란스러운 용어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격은 주로 내격을 위주로 살펴보고 여러 외격이나 별격은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명리 고전과 현대의 여러 학자들의 격국과 용신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였고, 특히 격국의 여러 개념과 각각의 내격 특성의 장·단점의 비교, 내격의 취격 순서 및 취격된 격에 대한 성격·패격의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자평진전』에서 얘기하는 상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보다 폭넓은 개념인 회신에 대하여도 간단히 정리하였고, 일간간명법과 월일간명법에서의 상신의 쓰임의 차이점을 검토·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격신과 격국의 혼용 및 동일한 용어에 대한 학자들의 포괄적인 다양성의 수용에서 오는 혼란을 후일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 채 마무리하였다.

**주제어** 운명학, 미래 예측, 정명론, 변명론, 명리학, 격국, 용신, 상신

**Abstract** The most difficult things, when we study the future-telling science of human destiny, are in case of what one's individual's fate is bad which is shown by *Saju-Palza*(四柱八字). In that case, we have faced the problems on how we live ; to follow or to deny our fate under the brief of improving our lives by trying to make hard efforts, regardless of the bad *Saju-Palza*(四柱八字). However, we can hardly find the clear answer to those questions. 『*Liao Fan 4 lessons*(了凡四訓)』 shows that one's destiny can be improved by accumulating good deeds despite of the bad *Saju-Palza*(四柱八字). Someone says that future can be created, not be foreseen. As well, Dr. Steven Coby says that the best definite way to forecast future is in creating the future. Anyhow, the strong desire and curiosity to know one's individual's future is having been lasted until now since the Genesis. We guess these desires may be one of our basic instinct. If then,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future-telling science will be to increase the accuracy of future prediction, whether our fate has been fixed or been able to be changeable. Therefore, this study summarizes the definition of confusing terms, focusing on *Gyeokguk*(格局) and *Sangshin*(相神), the core of *Myeongrihak*(命理學), which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popular future-telling science. Concerning *Gyeok*(格), in this paper, *Nae-Gyeok*(內格) has been mainly considered and *Ol-Gyeok*(外格) or *Special-Gyeok*(別格) have not been addressed. Specifically, it summarized the views of the classical *Myeongri*(命理) books and modern scholars on *Gyeokguk*(格局) and *Yongshin*(用神). In particular, it also summarized the comparison of various concepts of *Gyeokguk*(格局),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Nae-Gyeok*(內格)'s characteristic, the determination order of *Nae-Gyeok*(內格) and the good case and bad case of it's *Gyeok*(格). In addition, it was necessary to summarize the concept of *Sangshin*(相神), which was talked about in 『*Japyeongjinjeon*』 and to briefly summarize *Heeshin*(喜神) with a broader concept than *Sangshin*(相神). The different usage of *Sangshin*(相神) was also analyzed, between the priority interpretation of *Cheongam*(天干) in Day-Column(日柱) and the interpretation based on *Jijee*(地支) in Month-Column(月柱). Finally, this paper was completed, leaving it later as a research task, the confusion that comes from the scholars' acceptance of the comprehensive diversity on the same term.

**Key Words** Fortune-Telling Science, Future Prediction, Fatalism, *Myeongrihak*, *Gyeokguk*, *Sangshin*

Received 15 Jul 2022, Revised 19 Jul 2022

Accepted 22 Jul 2022

Corresponding Author: Kwan Hwangbo  
(Gongju University)

Email: amante21@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복잡다기한 사회로 현대인의 삶이란 매 순간 순간 선택과 포기의 결단을 더 빈번하게 강요받는 고뇌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작금의 우리 사회는 기후·환경 등의 변화로 인한 미래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자원 고갈 등으로 경제적이건 또한 더욱 악화되고 불확실성과 불안속성은 증폭되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연유로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음양오행설에서 출발한 명리학이란 미래 예측 술수학이 음지에서나마 일정 부분 우리 삶의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즉, 출생시점의 사주팔자에 배당된 천간지지를 근본으로 하는 명리학으로 각 개인의 사주팔자를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리스크(Risk, 위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이를 잘 활용하여 좋은 일은 추구하고 나쁜 일은 미리 피해 가는 취길피흉(取吉避凶)의 지혜로운 삶을 견지함으로써 각자의 삶에 대한 개인적 안전망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술수학은 각자가 자신의 명(命)을 앎으로써 일상의 선택과 집중 또는 선택과 포기를 결단할 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써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미래 예측 술수학의 중심에 명리학이 있고 그 중에서도 격국은 명리학의 핵심이 되므로 이 격국을 분석하고 여기에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상신에 대하여 조망해보고자 한다.

## 2. 격국(格局)의 개념

사주의 격국이란 그 사주의 일종의 이름과 같다. 그 사주에 일정한 구조와 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 격국이다. 격국은 크게 월령을 포함하는 격국과 월령과 그 이외의 것을 고려해서 정하는 격국으로 나뉜다. 전자를 내격, 정격(正格), 상격(常格) 또는 보통격이라 하고, 후자를 외격, 편격(偏格), 변격(變格), 별격(別格) 또는 특별격이라 부른다.

현대명리학에서 언급하는 격국은 월령을 중심으로 하는 격국 즉 내격을 주로 다루고 있다. 내격은 식신격, 상관격, 정제격, 편제격, 정관격, 편관격, 정인격, 편인격의 8격에 건록격과 월겁(양인)격의 2격을 더하여 10격으

로 되어 있다.<sup>1)</sup> 정제격과 편제격을 합하여 제격, 정인격과 편인격을 합하여 인수격이라 하여 정8격 또는 8정격이라 하기도 한다.<sup>2)</sup>

김기승은 “격이란 사주 명조의 골격이고 격국은 사주의 전체적인 틀(체계,system)이다.”<sup>3)</sup>라고 하였다. 김일엽은 “격이란 체제(사회체제)이고 체재(體裁)라고도 한다.”<sup>4)</sup>고 하였다. 월지에 연(連)하여 지지가 방합(方合)하여 이루어진 것을 방(方)이라 하고 삼합(三合)하여 이루어진 것을 국(局)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방국(方局)이라 한다. 격국은 격과 국(方局)을 합하여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5)</sup>

김종국은 『격국용신론』에서 “격이란 천간을 말함 이요, 국이란 지지를 말함이다. 격국은 천간지지의 흐름의 상태를 말함이니 이곳에서 천간이란 일주 천간을 말함이다. 지지란 주로 월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월지를 대조하여 그 주체가 일간이 되는 것이며, 일지 외에 지지 판국을 살펴서 규격을 정하므로 일명 ‘판국’이라고도 한다.”라고 했다.<sup>6)</sup>

전정훈은 『용신격국론』에서 “격이란 일간의 입장에서 바라 본 用이나 用神을 가리킨다. 廣義로는 사주명조 전체의 특징적인 형태나 중요한 쓰임이 있는 기운을 뜻하기도 하고(外格), 단순하게 月支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변격이 된 경우를 포함한 喜神, 相神, 用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依義로는 月支만을 나타내거나, 투간한 用神이나 相神을 지칭한다. 格局이란 격을 이루고 있는 사주명조를 統稱하기도 하고, 회지하여 局을 이룬 경우를 뜻하기도 한다. 廣義로는 오행이 고루 갖추어져 있는 명조이든지, 고루 갖추어지지 않은 명조이든지 육십갑자에 의해 네 개의 기둥이 세워진 사주명조 전체를 統稱하여 格局이라 한다. 依義로는 격이 局을 이루었을 때를 뜻한다.”고 하였다.<sup>7)</sup> 격이 局을 이룬 예를 보자.

癸 甲 戊 庚  
酉 申 子 辰

- 1) 김기승은 『격국용신정의』에서 건록격을 비견격으로, 월겁(양인)격을 겁제격으로 개칭하여 사용함,
- 2) 신경수 편저, 『명리격국용신론』, 글로벌사이버대학교, 2014, 15쪽 참조.
- 3) 김기승, 같은 책, 70쪽, 98쪽 참조.
- 4) 김일엽, 『김일엽명리전서』, 동양철학교육원, 2003, 316쪽 참조.
- 5) 정대봉, 『현대명리학』, 도서출판 한알, 2014, 264쪽 참조.
- 6) 김종국, 『격국용신론』, 한솜미디어, 2010, 16쪽.
- 7) 전정훈, 『용신격국론』, 혜경출판사, 2006, 51쪽.

子월 목복 印綏格이다. 이 때 연지의 辰토와 일지의 申금이 삼수를 이루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두고 격이 局을 이루었다고 한다. 즉, 印綏格이 印綏格局으로 세력이 커졌음을 뜻한다.<sup>8)</sup>

또 김동환은 『사주명리학 격국특강』에서 “격국이란 사주팔자에 나타난 사주 주인공의 특성, 개성, 성격, 적성 등을 말한다. 한 마디로 그 ‘그릇의 크기’라고 하며, 크게 내격과 외격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였다.<sup>9)</sup>

외격은 사주 명식에서 오행의 기세에 종(從)하여 격을 정한 것으로서 오행의 변화를 논하거나 또는 변하여 격을 이루었다고 해서 변격(變格)이라고도 하며, 月令에 格局(용신)이 없을 때 취격한 것이라 하여 외격이라 한다. 자평명리술에서 내격을 취할 수 없을 때에는 기세(氣勢)가 편왕(偏旺)한 것을 취하여 외격을 구성한다. 즉, 외격은 간지오행의 특이성으로 천지영수(天地靈秀)를 취하여 격국을 정한 것이다. 또한 외격은 명식의 전체가 오행의 어느 일행(一行) 혹은 이행(二行)에 편왕(偏旺)하는 것이고, 왕한 왕신 즉 명식의 전체를 체신(體神)으로 하여 체신(體神)에 순하는 오행을 용신(有用之神)으로 채용한 것이다. 외격에는 종격(從格), 기명종격(棄命從格), 화격(化格), 일행기득격, 강왕격, 양신성상격, 간지지방격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외격 중에서 특히 잡격(雜格)에 해당되는 암신격(暗神格), 협공격(夾拱格), 잡기격(雜氣格) 등이 있는데 다양하다.<sup>10)</sup>

### 3. 『자평진전』의 격국(格局)<sup>11)</sup>

『자평진전평주』를 번역한 박영창은 “월령지(月令地支, 월지)가 用神이고 그것이 바로 格局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평진전』에서의 용신 개념은 일반 명리학에서 말하는 격국 개념과 같은 것이다. 용사지신이 용신(격국)이라는 규정은 자평진전에서 체계화되었다.”고 말한다.<sup>12)</sup> 여기에서 용사지신은 월령용

사지신을 말하고, 이것을 용신이라고 할 때의 용신은 곧 격국을 말하는 것이다.<sup>13)</sup>

심효점은 『자평진전』에서 “격국에는 반드시 그것을 보필(輔弼)하는 상신(相神)이 있다.”<sup>14)</sup> 하였다. 여기에서 상신을 월지 즉 격국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명주(命主)가 살아가는 사회활동무대(격국)인 수도(首都)를 통치하는 수상, 재상 또는 수도시장이라고도 명명할 수 있다.<sup>15)</sup>

이영환은 “격이란 명조의 개별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격이라고 한다. 격은 정관격, 인수격, 재격, 식신격, 칠살격, 상관격 등의 내격이 있고 이 외에도 양인격, 녹겁격, 윤하격, 종격, 시상편관격 등 내격 외에 외격 80여 개의 격이 있다. 그런데 모든 격은 곧 용신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중략). 『자평진전』에서는 ‘월령이 용신이고 용신은 곧 격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격국을 설명하는 중에 월령이 곧 격이고, 용신이라는 뜻을 내보였다.”<sup>16)</sup> 또 이영환은 격(格) 혼자서 명조를 아름답게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用神을 돕는 相神을 두어 이를 국(局)으로 지칭하였다. 즉, 격(格)은 밑에 국(局)을 두어 상신을 기거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인수격에는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각기 다른 유형을 국(局)이라고 표현하였다. 인수격에 관을 쓰는 인수용관(印綏用官)이 있는데 『자평진전』에서는 이처럼 인수용칠상(印綏用七殺), 인수용식상(印綏用食傷) 등 많은 격국 이름이 등장하는데 모두 앞 부분에 있는 글자는 격(格)이고 뒷 부분에 나오는 글자는 국(局)을 말한다. 그래서 격(格)과 국(局)을 합하여 격국(格局)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다른 격(格)에도 여러 개의 국(局)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격국이라는 의미는 하나의 격이 여러 국으로 나누어지고 그것들을 통칭하여 격국이라고 함을 알 수 있다. 『자평진전』에 나오는 正官用財, 正官佩印, 財用植生, 財用傷官 등의 용어가 바로 국(局)을 말하는데 흔히 이들 용어 끝에 ‘격(格)’이라고 붙이는데 이영환은 그의 논문에서 ‘국(局)’이라고 해야 타당하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正官用財는 正官格用財局이 되며, 격(格)은 일주가 쓰는 용신으로 월령 즉 格用神이 되고, 국(局)은 월령이 쓰는 용신으로 相神 즉 局用神이 되는 것이다.<sup>17)</sup>

8) 같은 책, 52쪽.

9) 김동환, 『사주명리학 격국특강』, 동학사, 2006, 10쪽.

10) 정대봉, 같은 책, 289~291쪽

11) 『자평진전』에서 쓰는 ‘용신’, ‘상신’, ‘희신’ 등의 용어는 《현대일반명리》에서 각각 ‘격국’, ‘격국용신’, ‘역부용신(일간이 원하는 것)’ 등의 용어로 바뀌어서 이해함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12) 정대봉, 같은 책, 268쪽 재인용.

13) 같은 책, 268쪽.

14) 같은 책, 269쪽.

15) 같은 책, 269쪽.

16) 이영환, 「자평진전의 격국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51~52쪽

#### 4. 내격 취격의 순서

격국은 첫째로 월지, 둘째로 월간, 셋째로 시상(時上), 넷째로 연상(年上)에서 취한다. 단, 내격에서 비견·겁재는 취격하지 않는다. 월지에서 채용한 격국은 진격(眞格)이고 월지 이외에서 취한 격국을 가격(假格)이라 한다.<sup>17)</sup>

엄태문은 그의 저서 『내손안의 격국용신』에서 취격의 순서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 1). 월지(月支) 본기(本氣)가 투간(透干)한 것.
- 2). 월간(月干)이 지지(地支)에 통근(通根)해 유력(有力)한 것. 이 경우도 일지(日支)와 시지(時支)에 통근(通根)한 것이 연지(年支)보다는 우선한다.
- 3). 월지(月支)의 중기(中氣)가 투간(透干)한 것.
- 4). 월지(月支)의 여기(餘氣)가 투간(透干)한 것.
- 5). 시지(時支) 장간(藏干)에서 본기(本氣)가 투간(透干)한 것.
- 6). 시지(時支) 장간(藏干)에서 중기(中氣)가 투간(透干)한 것.
- 7). 시지(時支) 장간(藏干)에서 여기(餘氣)가 투간(透干)한 것. 이 경우 시지(時支) 장간(藏干)에서 연간(年干)에 투간(透干)했을 때는 취격의 원칙에서 제외된다.
- 8). 연·시간(年·時干)이 지지(地支)에 통근(通根)해 유력(有力)한 것. 자오묘유월(子午卯酉月)은 본기(本氣)로만 구성되어 투간(透干)되지 않아도 취격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필자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격국을 천간 위주로 취격해야만 하는 이유에서 이다.
- 9). 건록격(建祿格)은 투간된 것을 기준으로 취격한다. 양인격(羊刃格)도 국내(局內)에 관살(官殺)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10). 지지에서 투간하지 못하고 천간도 지지에 통근하지 못한 경우는 같은 오행의 천간이 셋이나 둘인 경우와, 월간 자체를 취격하는 경우.
- 11). 천간이나 지지가 한 가지 오행(五行)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천원일기격(天元一氣格)이나 지지일자격(地支一字格)이 있다.
- 12). 천간에서 취격하지 못해 자오묘유(子午卯酉)로

취격하는 경우.<sup>19)</sup>

김기승은 『격국용신정해』에서 ‘내격을 정하는 방법과 순서’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 月支에서 투출된 天干으로 격을 잡는다.
- 2). 투출된 天干 중에서 月支의 正氣·中氣·餘氣 순이다.
- 3). 투출된 天干이 없을 때는 月支의 正氣가 격이다. cf.(투출된 天干을 극하는 天干이 있을 때에도 月支의 正氣가 격이다).<sup>20)</sup>
- 4). 지지합국(삼합, 방합 등)을 이룬 오행은 격이 될 수 있다.
- 5). 간지의 음양이 다를 때는 천간이 격이다.
- 6). 戊·己토 일간이 辰·戌·丑·未월을 만났을 때는 比劫이 되어 격이 성립되지 않아 雜氣格으로 논한다.<sup>21)</sup>

#### 5. 격의 成·敗

『자평진진』을 기준으로 내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격국의 성·패를 정리할 수 있다.

〈표 1〉 격의 成·敗

월지/용신	성격	패격
관	재(정관용재) 인(관인상생)	살 상관 식신
재	관(재생관) 식신(재용식신) 상관(재용상관) 인(재격패인)	비견 겁재 살
인	관(인용정관) 살(인용칠살) 비견(인용비견) 겁재(인용겁재) 식신(인용식신) 상관(인용사관)	재
식	재(식신생재) 살(식신제살) 비견(식용비견) 겁재(식용겁재)	인 정관 상관
살	식신(칠살식제) 상관(살용상관) 인(살인상생)	재 관 살

19) 엄태문, 『내손안의 격국용신』, 역학도서관출판사, 2006, 16~19쪽 참조.

20) 맹기옥, 『나이스사주명리 이론편』, 상원문화사, 2013, 289쪽 참조.

21) 김기승, 같은 책, 76~83쪽 참조.

17) 이영환, 같은 논문, 55~56쪽 참조.

18) 정대봉, 같은 책, 302쪽 참조.

	양인(살격용인)	
상	재(상관생재) 살(상관대살) 인(상관패인)	정관 비견 겁재 식신 상관
겁	관(월겁용관) 살(겁재합살) 식신(월겁용식)	재인 상관 비겁
양인	살(양인대살) 관(양인용관) 식신(양인용식)	재비견 양인 상관 인
건록	관(녹격용관) 식(녹격용식) 인(녹격용인)	재 살 상관 겁재 양인

	大財욕망 실리추구 시원, 화통	과욕 제양 인간미 없음 허세, 허풍
정관	공명정대 언행일치 원리원칙 정의추구 절대신임	용통성 결여 자기비민 복지부동 피해의식 패배주의
편관	직감력 예리함 냉철함 청렴 인내력	난제봉착 잔인함 냉정 포용력 부재 살기(殺氣)
정인	보수적 안정추구 도덕적 맹신함 교육지향	용통성결여 혁신성결여 무기력 변화 혐오 간섭심함
편인	논리적 심사숙고 신비주의 경청선호 철학적사고	의심증 술수능란 공상가 우유부단 잔머리(모사꾼)

## 6. 주요 내격의 특성

내격의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 주요 내격의 특성

십정격	장점	단점
비견	평등, 협동 독립심 경쟁발전 자존심 인덕	무례 손해(이익분배) 극단적 고집, 독불장군 현실지각부족
겁재	목표의식 도전정신 자기보호 근면성실 급속발전	과욕, 계산적 이해타산적 오만, 독선 이기주의 외곬수 급속퇴보
식신	낙천적 성실 배려 지구력 보호본능	무사안일 비효율 무관심 느릿함 집요함
상관	임기응변 창작모방 표현력 패기 감정풍부	변덕, 질투 싫증, 무책임 실수연발 조직파괴 언행불손
정재	현실주의 치밀함 정확함 무결점주의 정리정돈	소복(小福) 소심함 발전저하 결벽증 불신
편재	능수능란 신속판단	변심 파오(실수)

## 7. 相神의 정의 및 개념

相神을 정의하기 전에 먼저 用神과 喜神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用神이란 쓰는(用) 신(神)이란 뜻이다. 자평 명리학의 텍스트인 『연해자평』에서는 ‘유용지신(有用之神)’이라고 하여 쓰임이 있는 신(神)이라고 정의 하였다. 廣義로는 본명(本命)내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오행을 六神으로 표현할 때 해당된다. 그러므로 본명(本命)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행(예: 相神, 喜神, 月令)을 六神으로 칭(稱)할 때는 모두를 用神이라 할 수 있다. 依義로는 月令에서 透出한 오행 중에서 일간과 같은 오행을 제외한 六神을 뜻한다.<sup>22)</sup>

喜神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대부분 약한 일간을 돕는 기운(예, 인성과 비겁)을 뜻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주의 흉신을 제거하거나 길신을 생해주어 용신이 아니면서도 용신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주의 핵심적인 기운 즉, 相神을 뜻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喜神은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相神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sup>23)</sup>

맹주옥은 『나이스사주명리 이론편』에서 “상신을 사

22) 전정훈, 같은 책, 84쪽 참조.

23) 전정훈, 같은 책, 39쪽 참조.

흉신과 사길신에 따라 때로는 생하고 때로는 극설하여 격국을 성격시키는 글자”라고 했다. 또 “격국용신이 월령 또는 월지에서 투출한 강한 천간의 글자라면 상신은 격국의 성패를 좌우하는 글자이다. 즉, 상신이란 사주의 격국을 성격시켜 주는 글자이다.”고 했다.<sup>24)</sup>

이영환은 “『자평진진』 격국 관법을 설명하자면 日主는 군왕이고 月令은 총리이고 天干과 合局神에서 얻은 相神은 장관이다. 相神은 『적천수』 등의 관법에서 最後用神이나 喜神에 해당한다 하겠다. 즉, 『적천수』에서 用神, 혹은 喜神이 『자평진진』에서는 相神인 것이다. 『자평진진』이 다른 명리서와 다르게 相神이 있게 된 이유는 무조건 月令을 1차 用神으로 보기 때문이다. 月令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힘이 강대하기 때문에 거의 命主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月令이 吉神이면 그 기쁨이 두드러질 것이고, 凶神이면 凶이 두드러질 것이다. 만약 월령이 凶神이면 法制하는 神이 있어야 하고, 吉神이라면 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神도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相神을 두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격국 관법에서 相神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고 했다.<sup>25)</sup>

심효침이 『자평진진』에서 말하는 ‘용신은 사실상 격국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격국에는 반드시 그것을 輔弼하는 相神이 있다고 하였다. 相神이란 격국(용신, 월지, 수도, 사회활동무대)을 忌神으로부터 保護·守護하고 輔弼하는 神을 말한다. 相神은 월지(격국, 용신, 수도, 사회활동무대)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명주가 살아가는 사회활동무대(격국, 용신, 월지, 수도)를 통치하는 재상(수도시장)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sup>26)</sup> 관련 내용을 아래에 인용한다.

월령에 이미 용신이 있으면 다른 속에는 반드시 상신이 있게 된다. 이것은 임금(일간, 나)이 재상(수도시장, 상신)을 얻어 그 보필을 받음과 같아서 상신은 나(임금, 일간)의 용신(격국, 수도)을 보필하게 된다. 예컨대 정관격인데 재성의 생조함이 있으면 정관은 용신이 되고 재성은 상신이 된다. 재왕생관(財旺生官)이 되면 재성은 용신이 되고 정관은 상신이 된다. 칠살에 식신이 있어서 칠살을 제어하면 칠살은 용신이 되고 식신은 상

신이 된다. 요약해서 말하면 사주 전체의 격은 어느 한 글자에 의해서 성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한 글자가 바로 상신인 것이다.<sup>27)</sup>

상신에서 ‘상(相)’은 ‘수상(首相), 재상(宰相), 승상(丞相), 벼슬, 도움, 다스림’을 의미하고, 일간은 일주로서 군주이고 대통령이며, 월지는 일간인 대통령이 살아가는 사회활동무대(수도)이다. 따라서 수상, 재상, 승상 또는 수도시장이 사회활동무대인 격국을 다스리고 지켜 격국을 輔弼·守護하게 된다.<sup>28)</sup>

또 “용신(격국)이 심하게 상하면 내 몸까지 다치게 되고, 상신이 심하게 상하면 용신(격국)이 다치게 된다.”<sup>29)</sup>고 하였는데 이를 음미해 보면 사주를 간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신이고, 둘째는 용신(격국, 월지)이며, 셋째가 내 몸인 일간(유용지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일간위주론의 자평학 가운데에서 기존의 자평명리술인 일간간명법에서의 일간과 유용지신보다 월지간명법에서의 격국과 상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0)</sup>

결국 격국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격국을 忌神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상신이라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격국의 忌神은 격국을 극(剋)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忌神을 억제하여 격국을 수호하는 신을 相神이라 정의한다. 예를 들면 월지가 식신·상관이면 이를 극하는 것이 인성이므로 인성을 억제하는 재성이 월지인 식신·상관을 수호하는 상신이 된다. 월지가 재성이면 이를 극하는 것이 비겁이므로 비겁을 억제하는 관성이 월지인 재성을 수호하는 상신이 된다. 월지가 관성이면 이를 극하는 것이 식신·상관이므로 식신·상관을 억제하는 인성이 월지인 관성을 수호하는 상신이 된다.

이에 관하여 아래에 인용한다.<sup>31)</sup>

식신은 재를 생하고 재는 식신을 수호한다.  
재는 관성을 생하여 관성은 재를 수호하며,  
관성은 인성을 생하여 인성은 관성을 수호한다.<sup>32)</sup>

24) 맹기욱, 같은 책, 293쪽 참조.

25) 이영환, 같은 논문, 50~51쪽 참조.

26) 정대봉, 같은 책, 318쪽 참조.

27) 심효침 원저/사락오 평주/박영창 번역,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2006, 203쪽.

28) 정대봉, 같은 책, 319쪽.

29) 심효침 원저/사락오 평주/박영창 번역, 같은 책, 204쪽.

30) 정대봉, 같은 책, 319쪽.

31) 같은 책, 320쪽.

32) 신성생, 『사주명리학대사전』, 갑을당, 1996, 693쪽.

그러나 월지가 인성이면 재성이 인성을 극하므로 재성을 억제하는 비견·겁재를 상신으로 취해야 하나, 이 경우에는 비견·겁재를 상신으로 취하지 않고 재성이 인성을 극하지 못하게 하는 통관신(通關神)인 관성이 인성의 수호하는 상신이 된다. 월지가 인성이면 정인격 또는 편인격인데, 이 때에 비견·겁재를 상신으로 취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비견·겁재는 물질적으로 나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도적에 해당되므로 나의 재물을 도적에게 맡길 수 없고, 비록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쓰임이 있어 비견·겁재에게 의지하면 잘 살게 될 때 반드시 물질적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재성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일간 즉 군주(대통령)에게 유용한 존재이므로 비록 기신이라 하더라도 극제(剋制)하여 버리기 보다는 설기(泄氣, 洩氣)·통관(通關)하여 격국도 보호하고 재성도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sup>33)</sup>

사주에서 무엇을 상신이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면, 『자평진전평주』에서는 정재격에는 식신과 정관을, 정관격에서는 재성과 인성을, 그리고 칠살격에서는 식신을 상신이라 하여 일명 십신의 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순용·역용의 신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격국을 보필·수호하는 것을 상신이라 정의하므로 격국을 충극(沖剋)하는 신을 사신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격을 이룬 신은 길신격·흉신격을 불문하고 강하고 확고한 것이 제일 조건이다. 그 다음에 길신에 대해서는 생부(生扶)하는 것과 흉신에 대해서는 제화(制化)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고 하였다.<sup>34)</sup> 이것은 격국의 중요성이 흉신의 악성(惡性)을 제화(制化)하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뜻한다. 흉신이 흉신격을 이룬 경우에는 그 격을 파(破)하지 않고 보호해야 한다. 아무리 흉신격이라 하더라도 극(剋)하면 나쁘다. 흉신은 제신(制神)을 요하지만 격국(흉신격)은 보호되어야 한다. 흉신을 역용함과 격국(흉신격)을 보호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즉, 흉신격이 제화(制化)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흉신 그 자체가 제화(制化)되어야 길하게 된다. 이 점에서 심효점은 격국은 지중(至重)하니 길성이든 흉성이든 생왕(生旺)하여야 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과 흉성도 제화라는 방법을 통해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심효점은 격국의 중요성이 흉성의 해로움보다 우선한다는 것과, 흉성이란 본시 능력은 뛰어난

지만 다루기가 어려운 야생마와 같아서 제화(制化)를 통해 다스리면 더 없이 유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월지(격국)가 아주 중요하므로 이 월지(격국)를 보필·수호하는 상신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주팔자를 간명할 때에는 격국과 상신을 살피고, 또 일간이 건왕(健旺)한지를 살펴야 한다.<sup>35)</sup>

## 8. 상신의 意義 및 位相

월지간명법에서 월지(격국)를 극하는 기신으로부터 격국을 수호하는 것을 상신이라 정의하였으므로, 식신격과 상관격의 상신은 재성이고, 정재격과 편재격의 상신은 관성이며, 정관격과 편관격의 상신은 인성이고, 정인격과 편인격의 상신은 관성이다. 그런데 어떠한 격국이라도 우선 일간이 쇠(衰)하다고 해서 비겁을 상신으로 삼을 수 없다. 이것은 ‘자신의 사회활동무대(격국, 수도)를 적군(비겁)에게 맡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정관과 편관을 극제(剋制)하는 식상도 역시 상신으로 삼을 수 없다. 이것은 ‘상관은 편법적·위법적·탈법적·불법적인 성분으로서 국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법자이므로 범법자(상관)에게 자신의 사회활동무대(격국, 수도)를 통치하도록 맡길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격국을 수호하는 상신에는 민중과 재물을 뜻하는 재성(財星)과 질서와 명예를 뜻하는 관성(官星)과, 교양·덕망과 결재권을 뜻하는 인성(印星)이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재관인(財官印)을 삼기(三奇)라고도 한다.<sup>36)</sup>

상신은 격국인 수도(사회활동무대)를 수호하는 자로서 수도의 통치자인 수도시장이다. 사회활동무대인 수도(격국)를 통치하기 위해선 상신인 수도 시장이 필요한 것이지만 일간인 대통령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간인 대통령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유용지신이 필요할 뿐이다. 월지간명법에서 말하는 상신은 수도의 시장(통치자)으로서 수도를 통치하는 ‘통치(統治)개념’에 해당되나, 일간간명법인 기존의 자평명리술에서 말하는 유용지신은 강한 일간을 억제하거나 약한 일간을 돕는다는 ‘억부(抑扶)개념’일 뿐이다. 따라서 상신의 통치(統治)개념과 유용지신(有用之神)의 억부(抑扶)개념은 이론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부연하면, 격국을 순생(順生)하고 생화(生

33) 정대봉, 같은 책, 321쪽.

34) 신성생, 같은 책, 1306쪽.

35) 정대봉, 같은 책, 322~326쪽 참조.

36) 같은 책, 328쪽 참조.

化)하는 통변성(通變星)으로서의 상신(相神)은 수도시장에 해당되므로 대통령(일간)의 마음인 유용지신과 서로 뜻이 맞는지를 잘 살펴야 수도와 대통령의 유정(有情) 관계에 의한 그릇의 크기를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간(日干)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는 유용지신(有用之神)이고 수도(首都)인 격국(格局)을 수호하는 자는 상신(相神)이므로 상신(相神)을 격국(格局)의 운용자(運作者)라 한다.<sup>37)</sup> 격에 따른 상신의 역할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자평진전』 격국(용신)의 상신<sup>38)</sup>

格局(用神)	相神
食神	財 . 殺 . 比劫
傷官	財.印.殺
財	食神 . 傷官 . 印
殺	食神 . 傷官 . 印 . 陽刃
官	財.印
印	官 , 殺 . 食神 . 傷官
陽刃	殺 . 官 . 食神

### 9. 일간간명법과 월지간명법의 상신의 차이

지금까지의 상신에 대한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정대부는 『연해자평』에서 정관을 격국으로 쓸 때 정관은 특히 재성을 꺼린다(기신)고 했는데 『자평진전』에서는 재성의 생조함이 있으면 재성이 상신이 된다고 한 점의 이론적 모순을 지적했다. 재격에서도 『자평진전』은 식상을 상신으로 쓰는 점의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관성을 상신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 또 격국은 용(用)의 체신이고 상신은 용(用)의 용신으로서 격국은 體에 해당되고 상신은 用에 해당된다. 하나의 명조에 두 개의 상신이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體는 하나인데 用이 두 개가 되어 체용이론에 맞지 않다고 하며 『자평진전』의 정관격·정인격의 복수의 상신이 오류임을 지적했다.<sup>39)</sup>

37) 정대부, 같은 책, 329~330쪽 참조.

38) 전정훈, 「자평진전의 상신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4

39) 정대부, 같은 책, 332~333쪽 참조.

〈표 4〉 고전자평학과 현대명리학의 상신 비교

격	용신 (격신)	상신			비고 (격의 보호)
		연해자평	자평진전	현대명리학	
식신격	식신	재성	재성 칠살	재성	식신을 극하는 인성을 재가극함
상관격	상관		재성 인성 칠살	재성	상관을 극하는 인성을 재가극함
재격	재성	관성	식상 관성 인성	관성	재를 극하는 비겁을 관성이극함
정관격	정관	인성	재성 인성	인성	관을 극하는 상관을 인성이극함
칠살격	칠살		식상	인성	살을 극하는 식신을 인성이극함
정인격	정인	관성	관성 식상	관성	인성을 극하는 재성을 관이설기통관함
월겁격	월겁		관성		
양인격	양인		칠살		

### 10. 결론

격국(용신)은 사주의 짜임새로 체(體)가 되고, 용신(상신)은 사주의 쓰임으로 용(用)이 된다. 즉, 격국(용신)은 사람의 신체(hardware)와 같고 용신(상신)은 사람의 정신(software)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신체가 건강해도 정신이 박약하면 건강한 인격인이 될 수 없듯이 용신(상신) 또한 격국(용신)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 『자평진전』에서 통변성 중에서 흉신은 반드시 제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흉신격을 제(制)해야 한다고 말하진 않았다. 제(制)한다는 것은 극하여 잘 통제시켜 길신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니 사용신은 제(制)를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감당하나, 사길신은 극(剋)이 절대적으로 불



요(不要)하다. 자평진전에서는 통변성인 흉신에 대한 제화를 격국인 흉신격도 제(制)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 적용한 것이 격국(월지)을 손상하지 않고 보호해야 한다는 ‘월지손상불가(月支損傷不可)’의 대원칙을 여기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부연 설명하면, 흉신의 제신과 흉신격의 상신에 대한 쓰임이 각각 따로 있는데, 『자평진전』에서는 이것을 흉신이든 흉신격이든 모두 제(制)해야 한다고 했다. 또 효신인 편인을 통변성에서는 흉신으로 분류하였으나 격국에서는 길신격으로 분류하였다. 즉, 살상효인(殺傷梟刃)을 이미 사흉신이라 하였는데, 살상겁인(殺傷劫刃)을 흉신격이라 하고 불선(不善)한 격국이므로 역용하여 제(制)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편인격과 정인격을 구별하지 않고 길신격이라 한 것과 흉신격을 제(制)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 월지간명법과 다른 점이다.<sup>40)</sup>

결론적으로, 흉신격(격국)을 제(制)하는 것이 아니라 흉신(통변성, 십요신)을 제(制)해야 한다. 격국은 길신격이든 흉신격이든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흉신격도 보호되어야 함은 활동무대(격국, 용신, 월지)가 복함과 같은 공산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살고 있는 명주(命主)의 입장에서 공산집단이 충극(沖剋)되어-전쟁이 발발하여-섬멸(殲滅)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명주(命主)가 살아가는 활동무대(격국)가 아무리 흉하다고 하더라도 보호되어야 한다.<sup>41)</sup>

이상으로 격국, 격국용신, 격국의 특징 및 격의 취용, 상신 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학자마다 고전마다 용어나 개념 정리의 혼선이 많아 후학들이 공부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용어의 통일과 개념의 재정의가 정립되어야 보다 더 정확한 간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더 연구하고 보완·정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격, 국, 격국, 격신, 격용신, 격국용신, 용신격국 등의 명확한 개념의 재정비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김기승은 일찌기 『격국용신정해』에서 격국의 명칭과 용어를 통일하여 용어의 혼용에서 오는 혼선을 줄이고 있어 선구자라 할 수 있다.<sup>42)</sup>

더불어, 명리 격국을 공부하는데 몇 가지 유념할 부분이 있다. 명리학에서의 신(神)<sup>43)</sup>은 서양의 God나 Ghost의 개념이 아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서양의 Energy나 파동,

동양의 기(氣)나 기운(氣運), 분위기, 조짐, 징조 등으로 치환해 볼 수 있겠다. 또 근원적으로 동양 역철학에 대한 탐구는 답(答)이 없는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사유(思惟)다. 매우 폭넓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형이상학의 형이상학인 동양 역철학은 모호성과 다양성<sup>44)</sup>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마치 무한 반복되는 피비우스의 띠와 같이 진리 탐구의 어려움은 지속된다. 완생은 없고 영원한 미생만 있을 뿐인 것 같은 미완의 연속이다. 이것 역시도 동양 역철학을 기계화·과학화·전산화·수학화할 수 없는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오직 역철학화만 할 수 있을 뿐일 것이다. 그런 고로 동양 역철학은 그 모호성과 다양성이 파괴되는 순간, 급속히 생명력을 잃고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변화에 순응하고 모호성을 유지해줌으로써 지금까지도 역철학이 누천년의 역사를 가지고도 소멸되지 않고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 광활한 우주의 시공간에서 끊임없이 시공간의 변화를 탐구하며 역(易)을 공부하는 역인(易人)들은 ‘역(易)은 곧 변역(變易)이다.’란 점을 상기하고 매순간의 변화를 깊이 탐구하고 수련하며, 세상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다시 깨닫고 변화의 역(易)을 더 깊이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차후 더 분석하고 연구하여 격국, 상신, 용신 등의 용어의 통일과 현대어화의 작업이 필요하겠고, 개념의 재정의(再定義)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역(易) 세계에서 고뇌하는 역인(易人)들의 마음에 아래와 같은 위안(慰安)의 문구를 인용·헌사(獻詞)하고 본 연구를 맺고자 한다.

造物者天 立命者我 <家傳寶>  
 我命在我不在天 <道家修行者>  
 知命者不怨天 知己者不怨人 <劉向>  
 知道者不惑 知命者不憂 <劉向>

명을 만드는 자는 하늘이지만,  
 명을 세우는 자는 나다.  
 내 운명은 내게 달린 것이지,  
 하늘에 달린 게 아니다.  
 운명을 아는 자 하늘을 원망치 않고,

40) 정대봉, 같은 책, 334~335쪽 참조.

41) 정대봉, 같은 책, 336쪽.

42) 김기승, 같은 책, 40~41쪽 참조

43) 선도(仙道)에서 神은 ‘인간의 생명활동을 주재하는 것’으로 풀이하여 사람의 ‘정신활동’이나 ‘의식 활동’을 얘기함.

44) 예, 무자다자론(無字多字論)같은 것이다. 재벌 총수 사주에 財가 없는데(無財), 財가 많은 것(多財)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자기를 아는 자 남을 원망치 않는다.  
길을 알면 헤매지 않고,  
명을 알면 걱정할 일이 없다.

## 참고문헌

- [1] 김기승, 『격국용신정해』, 다산글방, 2013.
- [2] 김동환, 『사주명리학 격국특강』, 동학사, 2006.
- [3] 김종국, 『격국용신론』, 한숨미디어, 2010.
- [4] 맹기욱, 『나이스사주명리 이론편』, 상원문화사, 2013.
- [5] 신경수, 『명리격국용신론』, 글로벌사이버대학교, 2014.
- [6] 심효침 원저/서락오 평주/박영창 번역,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2006.
- [7] 엄태문, 『내손안의 격국용신』, 역학도서관 출판사, 2006.
- [8] 전정훈, 『용신격국론』, 혜경출판사, 2006.
- [9] 정대봉, 『현대명리학』, 도서출판 한알, 2014.
- [10] 이영환, 「자평진전의 격국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사 논문, 2006.
- [11] 전정훈, 「자평진전의 상신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4.

### 황보 관(Hwangbo, Kwan)



- 2016년 02월 : 국제대학교총합대학원 대학교 졸업(국학석사)
- 2018년 08월 : 공주대학교대학원 (동양학박사 수료)
- 관심분야 : 역학, 동양철학
- E-Mail : amante21@naver.com